

정남준 전 차관 '문화중심도시' 주제 강연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이 17일 오후 도시건축문화포럼 및 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초청으로 광주를 찾아 조선대 서석홀에서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호남권 광역유관기관협의회 창립총회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리마니프리자호텔에서 '호남권 광역유관기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여협,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자)은 지난 16일 광주여성단체회관에서 신한 23개여성단체의 임원진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여성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송원대학 창업센터 입주기업 아이템 전시회



송원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최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1층에서 '입주기업 아이템 및 개발제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송원대학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축

▲김준태(시인)씨 장남 형남군 박명수씨 장녀 민희양=19일(토) 오후 1시10분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김희규(전 영암문화원장)·한정희(영암 민속예술단장)씨 삼남 경표(영암군 지역경제과)군 김길도(영광군 대마면 공도화원)·백인숙씨 차녀 경연(영암군 환경보전과)양=19일(토) 낮 12시30분 영암읍 청풍원웨딩홀.

▲박요주(세무사·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이양자씨 장남 용필(광주mbi 기자)군 채수운·민봉기씨 장녀 윤진양=19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김우식(서울 용산 건축토목학원 원장)·이정화씨 장남 희성군 오광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기획실장)·손미숙씨 장녀 성희양=19일(토) 오후 6시 서울 팔래스호텔 지하 1층(그랜드볼룸)

▲정상영·고정숙씨 장남 기재군 김용호(광주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박수자씨 차녀 진경양=20일(일) 오전 11시 50분 광주상록웨딩홀 4층(장미홀)

▲국영환(영암 도초초등학교)·김미숙(곡성 중앙초등학교)씨 차남 창훈(곡성군 기획예산실)군 선종남(경신건설)·조복희씨 장녀 유품(국민은행 문흥동지점)양=20일(일) 오전 11시40분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목포중·고 재광 동창회 송년의 밤=18일(금) 오후 6시30분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2층.

▲북성중 14회 동창회(회장 이현

전남대 간호대 김정선 교수 입학사정관 해보니

"독서·토론으로 창의력 길러라"

“입학사정관제도가 처음이다 보니 학생들의 준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독서와 토론을 많이 하면서 창의력을 키워 발표능력을 길러야 하며 원하는 대학의 인재상을 잘 파악해 상황에 맞는 서류와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 위주보다 잠재력·창의력을 보고 신입생을 뽑는 입학사정관제도에서 사정관으로 활동한 전남대 김정선(간호대학) 교수는 “입학사정 관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고등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도는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말쯤엔 대학 입시제도가 거의 100% 입학사정관 제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전국 각 대학이 매년 대상 인원을 크게 늘려갈 것으로 보이는 등 ‘대입 전형의 혼’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전남대와 조선대가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을 선발했다. 전남대는 지난 13일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104명을 최종 합격시켰으며 537명이 지원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대도 지난 11일 3.9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70명을 선발했다.

김 교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이다보니 고등학교에서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학생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사회적 식견·철학 등에 대해 고민하고 발표해야하는데 많은 학생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 교육 체계에서는 어렵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 독서나 토론 문화 자체가 생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교육 제도가 변화하기는 어려운 이상 학생·교사·학부모들의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리·창조·봉사가 인재상인 전남대의 경우 이와 맞는 서류나 면접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이 월등한 학생보다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보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도전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은 크다. 특히 이번 전남대 면접 과정에서도 성적은 높지 않았으나 토론에 의숙하고 비판적 사고는 물론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하는지 의식이 분명한 학생이 잠재력을 인정받아 합격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광주에서 살고 있음에도 이 지역에 대해 너무 무지한 학생도 많았다. 전남대는 지역 사회발전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등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시간 채우려는 봉사활동보다 적은 시간이더라도 봉사를 통해 많은 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부모 또한 자신의 자녀가 어떤 잠재능력이 있는지 알기 위해 대화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워치링기자 jrwi@kwangju.co.kr



"찾아가는 교사제' 운영 등 맞춤형 교육 성과"

비평준화고교의 '작은 기적' 일군 세종고 위홍주 교장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해 공부에 흥미를 잃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17일 만난 위홍주(53) 광주 세종고 교장은 비평준화 고교의 어려움을 깨닫고 대학 진학률을 높이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남교육청에서 전문직 장학사를 지난 뒤 올해 세종고의 초빙형 교장으로 부임한 위 교장은 교과 교사 수업 공개 등 내부 혁신을 통해 비평준화 학교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 교장은 “비평준화 고교는 중학교 때 하위 10%, 다시 말해 공부를 잘 못했던 학생들이 많은 게 사실”이

라면서도 “고교 3년 동안의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들이 우등생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위 교장은 “실제로 올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만 총 289명 가운데 262명이 4년

제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수도권 명문 대 진학자는 없지만, 비평준화 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다.

위 교장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수준별 방과후 학습, 특별 야간 자율학습실 배정, 주말에 ‘찾아가는 교사제’ 운영 등 학생의 수준에 맞춘 교육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위 교장은 “최근 3년간 4년제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평균 80%를 웃돌 정도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하면된다’라는 자신감까지 더해져 내년에는 더욱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평통 광주지역회의 '비서관 초청 특강'



박홍석 부의장

정용화 비서관

의 발전 방향을 교육·문화도시로 설정하고 그 강점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박정국기자 jwpark@

올해 일민문화상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일민문화재단과 동아일보사는 2009년도 제9회 일민문화상 수상자로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선정했다.

전남지역암센터 우수상



분~7시 30분. 010-9877-6166

부음

▲신영복씨 별세 일근·현주·은주·순주씨 부친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현성순씨 별세 임경재·성국·경애·수현씨 모친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임우순(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1계장·새종양합동 대표)씨 별세 성구(전남대병원 의사)·형주(서울대 연구원)씨 부친상=발인 18일(금) 그린장례식장 312호. 062-

250-4455.

▲이복례씨 별세 김고식·광식·성희·성숙씨 모친상=발인 18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최순주씨 별세 석환·상태·순엽·영금·봉자·복례씨 부친상=발인 18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임순진씨 별세 장희원·희정씨 모친상=발인 18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전종진씨 별세 오일(온누리 주유소 대표)·영일(대명주유소 대표)·현준씨 부친상=발인 18일(금) 나주시 한우리 장례식장. 061-335-4949.

종친회

▲충주박씨 하촌공문중(회장 박형달) 정기총회=19일(토) 오전 11시 남구 서동 사직명가. 062-673-2597.

▲동래성씨 시조산 동지향사(광주전남회장 정한영)=22일(화) 오전 10시 부산화지선산. 011-9615-8567.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풍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

